

#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展開過程

金 玉 姬\*

目 次	
I.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이전의 社會·政治·經濟的 상황	III. 辛丑年(1901) 敎難의 諸原因
II. 濟州島 初期 天主教 流入의 展開 過程	IV. 亂後 敎民에 對한 迫害現況과 敎會 發展

## I.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이전의 社會·政治·經濟的 상황

濟州島는 옛부터 탐라국으로 自治行政의 특수지역이며 여러 가지 相異한 習俗을 유지하여 왔던 곳이었다. 高麗末 공민왕 때에 崔瑩將軍이 牧胡(몽고인들의 牧者의 무리)를 討滅하여 평화의 섬으로 回復시켰으므로 朝鮮 건국 초부터 各地에서 各계各층의 사람들이 계속 이주해 와서 世宗時代에는 이미 그 人口數가 6만이 넘었다 한다. 대개 제주도민들은 外部社會와 고립된 生活條件으로 保守的 성격이 강하고 冒險的인 性格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朝鮮代부터 이 곳은 外地로 取扱되었고 國家의 혜택은 영세하였던 대신 차별적 대우와 중한 방위의

\* 水原카톨릭大學 敎授, 文學博士

임무와 國畜牛馬를 牧養하였고, 서울各司의 官吏들에 대한 生活品 進貢과 그들을 위한 사치품이나 장식품 등을 공납하는 과중한 부역이 강요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저항하여 빈번한 반란과 민요가 일어났던 지역이었다. 한편 政治的 權力과 합세한 地方土豪들의 발호라든지 收稅는 民衆들의 生活를 대단히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에 없었던 政府의 새로운 政策으로서 島民을 抑壓하거나 擄取하려 할 때에는 흔히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民擾가 자주 일어났다. 辛丑年을 앞두고 50년간에도 濫稅라든지 新制에 저항하여 수다한 民擾가 일어났던 것이었다. 1900년부터 中央政府에서는 王室의 財政을 메꾸기 위하여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섬에 擄稅官을 보내어 이제까지 없었던 各種 雜稅를 징수했는데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대단하였고 이러한 여파가 1901년 辛丑年 교난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濫稅의 內容을 좀더 구체적으로 分析해 보면 辛丑年 당시 제주도의 인구는 4만여 명이었고 一牧三郡으로 구분된 行政體制를 가지고 있었다.

1901년 정월에 李庠珪牧使는 퇴임되고, 濟州郡守였던 金昌洙가 전임 목사의 뒤를 이어받아 임시로 牧使의 職을 겸하고 있었다. 舊牧使인 李庠珪는 高宗 36년 巳亥年 10월에 부임한 뒤에 '공제당'을 重修하는 등 善政을 하려고 애를 쓴 듯하나 <具神父(M. Lacroux)의 보고서> 및 濟州牧使 李庠珪 勒奪教民等 錢知記數 등의 기록에 의하면 역시 자신의 착취 행위가 지나쳐서 면직된 듯하다.

당시의 제주도의 行政體制는 牧使를 행정 책임자로 하고 있었으나 1885년(乙未) 高宗 32년 가을 갑오경장의 여파로 본도의 行政制度 역시 개혁된 일이 있었다. 즉 그때까지 유지해 오던 牧使를 없애고 그 대신 관찰사겸 재판소 판사를 두고 그 아래 主事 13인을 두었으며 判官을 과하고 그 대신으로 高書官을 두어 郡守를 겸하게 하는 한편 경무청을 설치하여 그 안에 경우관 및 巡檢 50인을 두었고 兩縣監을 없애고 郡守라는 직제로 바꾸게 되었다. 山馬監 木官課 明月鎮萬戶와 審樂·劍律·爲學·택학 등의 官吏들을 없이하였다. 이 외에도 말들을 공납하던 貢馬 등의 관리도 과하였던 동시에 貢馬의 제도 면하게 해서 代錢으로 상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다음해 丙申年 3월에 이러한 新制에 반발하여 姜瑜爽·宋啓弘 등이 경무청을 부수고 서류를 불태우는 동시에 三邑에 產布하여 민중들이 봉기한 일이 있었는데 선동자였던 金志를 체포함으로써 무마되었던 일이 있었다. 濟州島에서 일어나는 民擾는 거의가 다 稅徵과 新制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여기에서도 당시에 부과되었던 稅種을 간단히 一瞥하고자 한다.

① 田結：本邑 田結 총계는 4,297結 83負 9束이고, 대정군은 2,427結 94負 5束, 정의군도 3,399結 70負 3束이었으나 상층·중층·하층으로 구분하여 납세하도록 했는데 육지부와는 달리 신해년 전에는 結에 대한 정세는 없었으므로 結은 명칭만 있을 정도였고 여기서 받은 세금을 군자청에 보관하였다.

② 營田稅：본읍에 한하여 있었다.

③ 加耕稅：公用に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元田 외에 加耕하는 자에게 수시로 징수했다.

④ 官需米：三邑 소재 관둔전을 耕作者에게 나눠 주어 水田을 1두, 종백미 12두, 乾田은 백미 6두를 받쳤는데 이것은 관원의 所捧이 되었다.

⑤ 衙祿米：원전세인데 醬油로 대봉했다.

⑥ 徭役：장작·숫을 바치는 세로 본읍인 경우 男丁 檢年 草 1겁 柴 1단 炭 5두가 되었다.

⑦ 雉鷄：女獨戶를 除하고 每戶에 닭 1首 달걀 3개를 捧하였다. 그러나 濟州島는 원래 瘠土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부에서는 특별히 면세하여 주는 때가 많았던 것이다.

일찌기 세종 10년 때 본도에 과세하자는 朝議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신 중에 제주도에 대한 과세를 반박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주장하기를, 「제주도는 山高하므로 풍화가 심하고 水禍가 많으며 旱禍도 적지 않으므로 과세하는 경우에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하여 면세하게 된 것이 이후 수백년간 면세하게 된 경위이다. (金錫翼《耽羅紀年》世宗 10年條). 그러나, 이러한 免稅는 오히려 地方官吏들의 착취의 기회가 되었고 점차로 중앙정부로부터 멀어져 지방 토호들의 발호의 계기와 無法의 천지가 형성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곳은 地方官吏·土豪들의 세력 형성의 발상지로서 어쩌다 중앙 정부에서는 필요상 收稅할 경우 이러한 地方土豪들의 발호와 선동으로 民擾를 일으키도록 조종하는 것도 이곳의 歷史의 특수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辛丑年(1901)을 전후하여 京來捧稅官이 이곳에 入島한 것과 함께 濫稅의 폐단은 민중들의 신경을 대단히 곤두세우게 하였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으로 하여 신축년 제주도의 교난은 상당히 복잡적이며 도내적인 사회, 경제적인 원인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중의 한 예가 아래와 같은 濫稅의 예이다.

光武 4년 1900년 12월에 內部視察로서 본도에 부임하였던 丁裕燮의 보고에도 제주도의 牧使와 郡守가 公金を 收斂하여 쓴 것이 萬餘兩이고 특히 제주군수이던 金熙胄는 同郡吏民에게서 橫斂한 것이 15,300餘兩이었으므로 免官하게 하였다는 記事가 皇城新聞에 報道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기록들을 빈번히 볼 수 있는데 京來視察官 자신들도 수탈자의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은 具(Lacroux)신부의 서간(1900. 10. 20의 서간)에 지방관의 이와 같은 수탈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 다음 기록은 그 대표적인 한 예이다.

「視察官은 金元永神父의 관하에 속하는 信者가 되었다. 그는 10월 2일부터 여기에 있었다. 그는 과산의 거의 12의 반을 차지한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牧使(地方土着人)와 가까웠다.……그는 노루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열세촌락들에서 사람들을 징발해야만 했다. 그때 사람들은 추수를 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만 할 때였다. 그는 나에게 몹시 유감스럽게 보였다.……만일 그가 잃으면 목사는 구함을 받았다. 만일 그가 남으면 목사는 잃었다. 시찰관은 30세 미만의 약관으로서 그가 옳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허락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 결국 視察觀과 牧使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것은 2만냥의 돈의 액수가 문제였다. 牧使는 그에게 2만냥이 좀 덜 되는 15,000냥을 갈취한 액수를 내놓았다. 말할 것도 없이 牧使가 탈취한 것을 받지 않았다. 다른 牧使들에게 받을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그는 2만냥을 채워 주기를 원했다. 視察官은 그 가장 친한 친구인 金景河의 집에 갔다. 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최후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정리 되었을까? (사실 어떤 조사도 되지 않는다) 한 달의 기한 안에 관관은 4,000냥 이상을 더 도둑질했는데 예비 자처럼 해 가지고 나의 본당에 등록된 신자들에게서 탈취해내었다. 도둑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눈 앞에서 행했다. 金元永神父는 그 시찰관을 거스리고 일어나서 벌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랐다. 이 날에 그 시찰관의 종은 내가 알지 못하는 漢文으로 기록하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배로 떠나기 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金景河는 시찰관이 우리들을 거스려 악 감정을 품게 하려고 애썼다. 視察官은 나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려 왔다. 그도 역시 나를 보러 왔다. 그러나 나는 그를 문 밖에 두었다. 主教님! 당신은

1) 皇城新聞; 光武 4年 12月 12日(陰10月 21日), 雜報, <濟民誰賴> 참조.

그들을 거스려 불평을 가지지 말라고 충고하시겠지만, 우리들에게 생긴 이 지겨운 감정을 숨기고 고쳐 마음먹으면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없겠으나 그에게 용서를 청한다면 人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主教님께 金神父의 편지와 그 종의 문서를 같이 동봉합니다.」<sup>2)</sup>

이상의 具(Lacrouts)마실 神父의 서간에서 視察官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視察은 하지 않고 사냥이나 즐기면서 한참 바쁜 농번기에 도민들을 징발하고 목사를 통해 거대한 금액의 액수를 부당하게 上納하게 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액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예비신자처럼 가장해 가지고 나머지 액수를 天主教 信者 명단에 등록된 자들에게서 받아냈다 한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漢文을 모르는 佛國 宣教師를 이리저리 숙여가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렴주구한 내용을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한편 여기 분개한 젊은 金元永 神父와 具마실신부는 그들을 도둑질 한다(voleur)고 기록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벌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金元永 神父는 상당히 정의감에 넘치던 젊은 神父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잠깐 언급한 '智島事件'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그 사건에 제주도에 있었던 金元永신부가 관계하고 있었다. 金元永신부는 그 당시 드물게 보이는 한국의 젊은 신부로서 어떻게 지방관리들이 도민을 속이며, 선교사들에게 불의하게 무함하고, 그 지방 토색들이 중앙정부의 법이 못 미치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갈취를 하였던 지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같은 동족으로 토호들의 가렴주구에 대하여 너무나 창피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濟州島에 天主教가 受容되기 이전까지의 社會·政治·經濟的인 상황을 대강 살펴 보았다. 즉 위의 내용에서 중앙정부와 먼 거리에 있었던 이곳 도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착취를 당했으며, 그 당시에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地方官吏들의 행패가 어떠한지를 대강 알 수 있을 것이다.

## II. 濟州島 初期 天主教 流入의 展開 過程

濟州島에 처음으로 天主教가 流入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대개 1899년에는 宣教師들이 濟州에 入島하여 傳敎한 기사가 나타

2) 具마실(Lacrouts) 神父의 서간, 《No. 23》, 1900년 10월 20일.

나 있다. 그러나 Mgr. Mutel(閔德孝)主敎의 報告書에 의하면 1899년 이전에도 드물게 이 섬에 몇몇의 신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1866년 전에 몇몇의 信者들이 이 섬에 살았다. 그러나 M. Peynet(뻬이네)神父가 1899年 5월에 처음으로 이 섬에 선교사로 갔을 때는 그들에 대한 흔적이나 자취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다.」<sup>31</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분명히 濟州島의 天主教 流入에 대하여 1866년 이전에도 天主教 信者들이 살고 있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濟州島 도민들의 天主教 접촉은 이보다 훨씬 전으로 미루어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즉 이곳은 조선시대 많은 學識을 가졌던 유배인들이 이곳에 살았고 한편 邪學微義 등의 기록에 의하면 天主教人이라는(邪學罪人) 명목으로 이곳에 유배되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黃嗣永의 부인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와 그녀의 묘가 지금도 제주도 모슬포에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근래에 밝혀지게 된 황사영의 부인 丁蘭珠(敎名 마리아 : 丁若鉉의 딸, 丁茶山先生의 조카)에 관한 사실과 전해진 이야기에 관여된 人物을 찾았기 때문이다. 黃嗣永(알렉산벨)이 1801년에 死刑된 후 그의 母親은 거제도도 유배되고, 그의 부인 丁蘭珠는 두 살 난 아들과 시녀 한 사람과 더불어 목포를 거쳐 제주도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丁蘭珠는 丁若鉉의 딸로서 19세에 黃嗣永과 혼인을 하였고 열심히 天主教를 믿다가 1801년 신유교난으로 黃嗣永의 帛書 사건이 발각나서 남편이 옥시형을 받고 참혹하게 새남터에서 순교하자 그녀는 11월 21일에 포졸들에게 이끌려 두살 된 아들 黃景憲을 데리고 배편으로 제주도를 향하여 가던 도중에 추자도 가까이 왔을 때 뱃사공들에게 패물을 주면서 어린 아들을 살릴 일념으로 애원하였다 한다. 사공은 나졸 두 명에게 술을 먹여 허락받고 추자도에 이르렀을 때 사공들은 추자도 예초리 서남단 물산리 언덕배기에 어린애를 내려놓았고, 관가에는 황사영의 어린 아들 景憲은 죽어서 수장하였다고 보고했다 한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추자도에 내려오는 전설로는 어린애 울음소리를 듣고 소를 뜯기던 부인이 가 보니

3) <Mgr. Mutel(閔德孝)主敎 보고서> : 「Compte-Rendu des Travaux de la Société des M.E.P. (Mission Etranger de PARIS)」  
(뻬리 外邦傳敎會의 古文書 : 韓國部 : Archives de la Société de M.E.P. Section Corée) "Avant 1866 quelques rares Chrétiens avaint habités Cette île, Mais toute trace et même toute souvenir de leur passage avait disparu..."

아이가 있어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저고리 동정에 무엇인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아 펼쳐 보니, 부모들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것을 보고 그 집에서 기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곳에 사는 뱃사공 吳氏 부인이었다 한다. 이렇게 해서 황사영의 아들 黃景憲은 결국 살아남게 되었고 吳氏의 아들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黃氏를 기른 인연으로 해서 추자도에서는 현재까지도 黃氏와 吳氏는 혼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풍습이 있다 한다(현재 黃景憲의 墓가 추자도에 초리 바위 위에 있다). 이상의 내용은 지방민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황사영의 아들 황경헌은 「추자도 유배」라는 기록이 「사학정의」에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황사영 婦人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01년 동짓달 중순에 丁蘭珠(마리아) 일행은 제주도 화북포구(현재 제주시 화북동 포구)에 도착하여 주막에서 자고 이튿날 화북을 출발하여 중산간 오솔길(현재 제주시 서쪽 에월읍 광평리)을 거쳐 100리의 길을 걸어 대정군에 짐을 풀고 원청에 인계되었다 한다(제주에 많은 유배인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죄인은 대정군에 보내졌다). 丁氏 婦人 일행은 金錫九(그 당시 牧使의 고문격으로 있었던 사람이라함)氏의 집에서 官婢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金錫九(1780~1870)는 東軒 뒷집에서 살았는데, 당시 8세 되는 金尙集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金尙集이 자라면서 그를 돌봐 주는 丁氏 부인을 몹시 따랐고 그녀도 최대의 힘을 기울여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丁氏 부인은 물론 유배온 죄인의 처지이지만 그의 인품이나 양반의 부인으로서의 교양이 높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다 한다.

金尙集氏에게는 時伯·時元·時現의 세 아들이 있었고 큰아들 金時伯은 또 永秀(1846~1920)·永好(1858~1947)·永鶴·永寬이 있었는데, 丁氏 부인이 66세를 기해 사망하자 김상집은 영수·영호·영학·영관 등 손자들의 이름으로 추자도에 있는 黃嗣永의 아들 景憲氏 집에 부고를 보냈다 한다.<sup>4)</sup>

그러나 丁마리아의 생활이나 더우기 그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서울할머니로서 동리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丁氏 부인은 天主教 관계의

4) 이상에 관한 事實은 濟州敎區廳에서 조사한 것에 따름. 金병준 神父의 조사 기록이다.

박해로 이곳에 유배온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적어도 그 자신만이라도 신앙생활을 보존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史實은 남아있는 史料가 全無하므로 속단할 수 없으며, 이상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믿을 만한, 이곳 주민들에게 전하여 내려오는 말인 것이다.

이 외에 제주도에 天主教 전파의 기록은 金錫翼氏의 《增補耽羅誌》의 附寄聞傳說條에 나오는 것으로 제주도민으로서 처음 天主教와 접촉한 사람은 金福壽라는 사람이라 한다. 그는 壬亂 때 風波를 만나 安南國에 표착하였다가 그 후 日本使行을 따라 大阪城으로 들어가서 仇羅娑旺使者를 만나보고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으며 方書 12권과 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후에 다행히 船便을 얻어 제주도로 돌아왔지만 그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sup>5)</sup>

다음으로는 1세기가 지난 이후의 사건으로서 제주도에 본격적인 天主教 전파에 대한 記事들을 역시 CH. Dallet教會史 속에서 그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다. 즉 1858년 8월 5일자 張 Berneux主教의 빠리의방 전교회에 보고한 서간의 기록을 간추려 보면, 펠릭스 베드로(Félix Pierre)라는 제주도민이 탄 배 한 척이 1856년 풍랑을 만나 廣東海域으로 漂流하게 되었는데 그 배 속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英國船 하나가 나타나 그들 중 1명을 구하여 홍콩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 사람은 朝鮮 神學生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한다. 이 神學生은 Pinang神學校에서 공부하다가 요양하기 위하여 홍콩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漂流人은 그 神學生의 인도로 그곳 Rouseille神父의 지도하에 있으면서 神學生 자신이 교리를 가르쳐서 洗禮를 주게 되었던 것이었다. 즉 바드로라는 본명이었던 것 같다. 이 펠릭스 베드로는 마침 1858년에 조선에 귀국하여 페롱(Feron) 權神父와 崔良業神父를 만나 보고 教理책을 얻는 한편, 張主教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 가지고 제주도로 돌아가서 濟州島의 도민 20명과 그의 가족 40여 명을 改宗시켰다는 기록이 있다.<sup>6)</sup> 그러나 펠릭스 베드로는 앞서 풍랑을 만났을 때 같이 배를 탔던 도민들의 친척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였다는 모함과 공격을 받게 되었

5) 金錫翼: 《增補耽羅誌》附寄聞傳說條, 1954, p. 280.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道害”, p. 37.

6) CH. Dallet; *Histoire L'Eglise de Corée*. Tome II p. 439.

는데 그 때 마침 제주도 지방관 한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섯 사람이 한 사람을 살해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여섯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오」라 하여 펠릭스 베드로는 살아남게 되었다. 그때 펠릭스 베드로는 배 한 척을 매수하여 사공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예비시켰다 한다. 이 사공 중의 한 사람인 高라는 사람은 뽀띠니꼴라(Petinalas)神父에게 베드로라는 교명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펠릭스 베드로는 계속하여 제주도에 信仰의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張 베르뇌主敎도 그에게 가능하면 神父 하나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즉 1866년 병인 大迫晝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때에도 펠릭스는 洗禮 준비가 되어 있는 다른 두 改宗者를 거느리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왔던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그는 또 풍파를 만나 日本 나가사끼(長崎)에 漂着하여 그곳에 있었던 뽀띠짱(Petijean)主敎와 그 외 神父를 만나 보았다고 전해진다. 아마도 그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sup>7)</sup>

물론 Mutel主敎의 보고서에서 말하는 「1866년 이전 이 섬에 몇몇의 크리스찬들이 희소하게 살았으나 선교사들이 1899년에 (Peynet神父와 金永永神父) 이 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자취나 기념될 만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sup>8)</sup>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866년 이전의 크리스찬들의 흔적이란 것이 바로 펠릭스 베드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벌써 哲宗時代에 濟州島에 우연이기는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기록으로서도 민들 중 적어도 20여 명 이상의 信者가 살았다는 것이 유추되며, 이 교우들은 병인교난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어 갔거나 이 교난으로 인하여 宣敎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다시 1886년 프랑스와의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信徒들의 자유가 육지에서 시작된 때, 제주도에서도 1899년경에 다시 본격적인 布敎가 시작된 것이다. 즉 1898년경에 제주도 中文面 檣達里에 거주하는 양 베드루라는 사람이 육지에 머물러 있을 때 영세 입교하여 열심히 수제하다가 고향에 다시 돌아와 신 아오스딩과 신 바오로(1901년에 순교) 형제와 보성(大靜邑 保城里)

7) Ch. Dallet; Ibid. Tome II. p. 439.

8) Mgr. Mutel; 「Compte-Rendu des Travaux de la Société des M.E.P.」 "En 1900.....Souvenir de leur Passage avait disparu. Quand P.M. Peynet et un Prèdddtre Coréen y sont allés pour la première fois au mois de Mai 1899 ...."

金생원과 강 도비아에게 전교하였다 한다.

양 베드루는 한국교회의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베드로처럼 그는 제주도의 최초의 使徒 베드로로 그는 1년 전 육지에서 영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傳教함으로써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장본인이 되었다. 처음 양 베드루가 입교시킨 이 네 사람이 열심히 수제하여 목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당시의 教區長이었던 Mutel主教에게 열심히 이곳에 宣教師를 파견하도록 청하였던 것이다. Mutel主教는 이에 응하여 마침내 다음 해 선교사 베이네(Peynet 襄)神父와 한국인 金元永(아오스딩)神父를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하였던 것이다.<sup>9)</sup>

베이네神父는 그 때 26세의 청년사제로서 2년 전에 내한한 이래 갓 등이, 하우고개 등 宣敎地를 거쳐 이번에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한편 金元永神父는 새로 神品을 받고 제주도에 부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신부는 1899년 5월 23일 배편을 이용하여 제물포를 떠나 목포를 거쳐 26일 아침 다섯시에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sup>10)</sup> 동행한 교우는 세 사람으로 추측되는데 두 명은 제주사람이고 한 명은 육지사람이었다고 한다. 육지사람이 바로 신부들의 충실한 복사였고 회장이었던 박 고스마였다. 박 고스마는 본시 경상도 출신으로 영세한 이후로 몇 년 안 되지만 젊고 능변이며 교리에 통달하여서 선교사들에게 유능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한다. 제주인 두 명 중에는 제주도의 使徒이며 선교사를 제주도에 맞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장본인인 양 베드루와 그의 동료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1899년 5월 26일 아침 두 신부(Jean Charles Peynet: 襄嘉祿神父, 金아오스딩: 元永 神父)는 우선 제주읍

9) ④ 崔德弘神父: “濟州島의 虐殺事件과 本堂沿革”, 《카톨릭研究》, 9, 10月號. 1933.

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Mutel主教 자신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나는 가장 큰 섬인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들이 시도했던 것을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月末(5月23日)에 나는 M. Peynet를 한국인 神父 한 사람과 그곳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다.

10) Letre de Pr. Peynet. 1899년 5월 28일 ·No.2 <濟州에서 Mgr. Mutel主教에게>

내의 客舍에서 여장을 풀었다.<sup>11)</sup> 이어 신부택에 적합한 집을 물색하기 시작했으나, 집값이 터무니 없이 비쌀 뿐더러 주민들이 선교사들에게 집 팔기를 꺼려 집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한다. 다행히 전에 한성부윤을 지냈으며 이곳에 귀양와 있었던 김경하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중개해 주어 집 한 채를 계약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 집을 산다는 것이 곧 탄로되어 집주인이 해약하고 말았으나 이번에는 끝까지 비밀이 누설되지 않아 역시 유배자인 장감찰의 이름으로 가옥을 매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다. 집값 1,550냥을 치르고 6월 14일 무사히 새 집으로 이사하였다. 새로 마련한 신부택은 제주읍 남문에서 멀지 않은 큰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며, 지대가 높지 않아 시내와 마찬가지로 평지였다고 한다.<sup>12)</sup>

金元永神父는 편지의 발신 장소를 늘 제주 대로동으로 말한 것으로 미루어 신부택이 제주 대로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그러나 Mutel主敎의 보고서에 보면 처음 傳敎하는 데 있어서 몹시도 체질이나 기질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처음에 우선 그들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을(필수적이고 유익한) 얻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첫번째의 어려움은 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데 많고 큰 방해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주도민들이 너무도 특수하고 어려운 성격과 관습들의 큰 차이(외국 선교사의 눈에)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제주도민들의 성격은 외국인들

11) *Compte Rendu de Travaux de la Société des M.E.P. (Par.Mgr. Mutel).....*  
Ce que nous avons tenté pour L'évangélisation de la grande île de Quelpaért (Chei Ju).

En Mai dernier, M. Peynet y. a été envoyé avec un prêtre Coréen. Ils ont réussi à se faire accepter et même à Se procurer une maison. C'est déjà un premier point d'acquis le reste sera oeuvre de patience et d'efforts soute nus.

12) Lettre de P. Peynet. 1899. 6. 6. <No. 3> <濟州에서 Mgr. Mutel에게>

13) Quand M. Peynet et un prêtre coréen y sont allés, pour la Première fois au mois de mai 1899. Nous n'espérons pas qu'ils pussent faire autre chose, cette première année que de se faire accepter et s'installer.....

신부들이 들어간 집은 문간과 사랑채 만이 기와이고 나머지는 초가였고 문간이 2칸 사랑채가 4칸(그중 3칸은 마루) 안채가 4칸 이렇게 모두 아홉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뜰에 우물이 있고 사과·감·곶나무 등으로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을 대단히 경계하였고 무엇보다도 미신을 많이 숭상했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매우 드물었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때 제주도에서 전도를 시도한 바 있는 미국인 목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민들의 마음을 끌어보려는 궁여지책에서 개종자들에게 매달 1백냥씩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예비자들 중에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한다. 이들에게 메이네 신부는 「우리 카톨릭에선 사람을 돈으로 사지 않으며, 다만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만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 Peynet神父는 보고하고 있다. 한편 그들에게 통행되는 결혼법은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결합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풍속의 다른 점이나 대단히 적응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때문인지 처음 선교사였던 M. Peynet神父는 부득이 제주도에서 나왔고, 대신으로 1900년 마지막 피정 후에 具瑪瑟(P. Marcal Lacrouts)神父가 入島하였다. 1901(辛丑) 5월 10일(양) 文濟萬(못세 Jean-Germain Mousset)神父가 들어가게 되었다.

1900년 3월 22일자 金元永神父의 편지에 교우수가 5명인데 부활절 때까지는 10명 내지 15명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10개월의 전교의 성과가 고작 5명에 불과했으니 얼마나 선교가 어려웠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그 후 박 고스마회장의 家口마다 방문으로 제주읍 밖의 시골에도 점차 예비자의 수가 늘어가게 되자, 金元永神父는 1900년 9월 6일 정의, 한논에 정착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전교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이미 6, 70명의 예비자가 있었다 한다. 1901년 초에는 영세자 50명을 배출하였고, 예비자가 4백명으로 급증하

14) Comptes-Rendu des Travaux de la Société des M.E.P (Par Mgr. Mutel) en 1900.

Ils étaient d'ailleurs privés des auxiliaires si utiles, si indispensables même en pays neuf. Mais Dieu a béni leur dévouement et la première grace est rompue. Les obstacles que l'évangélisation trouve tout particulièrement à Quelpaért sont le caractère difficile des habitants et la grande corruption des mœurs. Les unions matrimoniales se contractent et se rompent avec une facilité désespérante, à ce point qu'on est embarrassé pour trouver des ménages légitimement unis. Depuis la dernière retraite, M. Lacrouts a remplacé, M. Peynet et les nouvelles que j'en recois font bien augurer de l'avenir……」

15) Lettre de Augustin Kim, 1899. 7. 27.  
〈제주에서 Mgr. Mutel에게〉 〈No. 5〉

고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십이단과 문답이 떨어져 즐거운 비명을 울려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한다. 제주읍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십이단이 떨어져 서울에 거듭 재촉 편지를 띄웠다. 1900년 9월에는 한논을 분리하여 독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이 비좁아 연내로 새 집을 마련해야 할 긴급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1900년 8월에 이르러서는 성당으로 사용되는 사랑방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새로 큰 집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sup>16)</sup>

때마침 정부에서 공공건물을 매도하려고 내놓은 것 중에는 軍器庫(14칸)·賑庫(20칸)·冊司(8칸)·將廳(8칸)·司食(4칸) 등이 있었다. 그러나 베이네 신부의 후임 M. Lacroux 具신부는 Mutel主敎에게 「이 집들보다는 차라리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제주 주민(특히 부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사고 싶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재목과 기와가 값이 싸서 이 집들이 아마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主敎에게 최후의 결정을 일임하였다. 그 후 이 집들을 매입하였는 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제주도에는 갑작스레 신자수가 늘어났는데 1901년 봄에 전교한 2년간의 성과는 영세자 242명, 예비자 6, 7백 명이란 놀라운 숫자를 기록했다.

1901년의 Mutel主敎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민은 봄에 온전히 즐거워했고, 우리들로 인해 희망스러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2년 동안의 복음전파는 우리들에게 242명의 영세자와 6백 명 내지 7백 명의 예비자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고스란히 사탄의 권력 밑에 있었던 영혼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주도에는 2인의 신부가 선교에 종사하게 되었고 제주 본당을 제주성 내에 두고 旌義縣 西拱里에도 교회를 두었으며 중요한 각 촌, 里에는 公所를 두었다.<sup>17)</sup>

16) Compte-Rendu des Travaux de la Société des M.E.P.  
(Par Mgr. Mutel) en 1901.

Quelpaërt. Au printemps, nous étions tout à la joie et à l'espérance en constatant les beaux résultats que deux ans d'évangélisation nous y avaient donnés: 242 Baptisés et 6 à 700 catéchumènes. C'était autant d'âmes, aux griffes de satan car, jusqu'ici, il régnait en maître dans la grande île. Aussi n'est-il pas étonnant qu'il ait voulu se venger de ses défaites. Il l'a fait d'une manière terrible,.....

17) Mgr. Mutel. Ibid.

1901년 辛丑年을 전후하여 제주도의 교세는 제주읍에는 M. Lacrouts 具神父가 있었고 濟州邑 聖堂에 金元永神父는 서귀포 한논, 現 西歸浦市 西烘洞의 성당에 자리잡고 선교하고 있어서, 그 교세가 급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축년 4월 30일에는 佛國公使 葛林德은 우리 정부에 대하여 프랑스 신부 3인이 충청·경상·전라도 및 제주도를 순력하기 위한 護照를 신청하기까지 하였다.<sup>18)</sup>

·金泰能氏(1962년 제주신문「聖敎亂」의 긴 記事)는 당시 天主教의 갑작스러운 확장 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주주민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支配者와 權力層에 대한 원망심과 反抗心이 長久한 기간을 두고 누적되어 왔다. 그런데, 숙명적인 빈곤과 역사적인 불평과 원망심으로 쌓여 있는 이 시점에 高宗 光武初에 天主教가 처음으로 布敎되기 시작하였다. 교회에서는 이들 불우한 주민의 入敎者에 대하여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교우로 대우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天主教의 인자한 정신에 감격하였고 또 봉건적인 억압과 인습에서 해방되어 구원되고 있음을 기뻐하여 入敎를 원하는 선량한 도민들도 많았다」<sup>19)</sup>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유흥렬교수는 언급하기를 「겨우 일년반 동안에 濟州島에서 天主教가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편 정치의 부패 문란에도 기인한 것이었다. 그 때 제주도는 一牧三郡으로 行政區域을 구분하여 牧使가 三郡을 管轄하고 있었다. 그런데, 濟州牧使이던 李庠珪는 도민으로부터 1만냥의 돈을 私取한 죄로 1901년 1월에 면직되고, 3월 2일에 濟州郡守로 부임한 金昌洙가 한때 牧使職을 겸하게 되었으며, 제주 출신인 채구석이 1899년 8월 22일부터 大靜郡守를 지냈고, 또한 제주인으로서 제주군수를 지내던 金熙甯가 1901년 3월부터 旌義郡守로 轉任하게 되었다. 이때 특히 李庠珪에게 불행히 돈을 빼긴 도민들이 많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부족된 王室의 財政을 메꾸기 위하여 1900년경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섬에 捧稅官을 보내어 이제까지 없었던 各種 雜稅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동년 가을부터 평안북도 사람인 姜鳳憲이 이 일을 맡아 봄으로써 도민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sup>20)</sup>라고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갑자기 天主教 入敎하는 사람이

18) 法案 ②. 光武 4年 9月 25日

19) 金泰能; “聖敎亂”, 濟州新聞, 1962. 10.

20)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 天主教 道害” 참조

늘어나는 원인을 稅弊에서 오는 民苦에서부터 탈출구를 찾는 도민들의 심리적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축년을 앞두고 수년 전부터 제주 도민들은 자주 民亂을 일으켰는데, 때로는 新制를 반대하여 일어났고, 때로는 妖言者의 선동(주로 日本人 密漁業者들의 선동) 등으로, 제주도에서는 민심이 격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또한 신축년 이전의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民擾로 인하여<sup>21)</sup> 民心이 안정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이 제주도민들의 天主教 入教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과 일치되는 또 한 가지 원인은 그 당시 內部視察 丁裕燮이가 濟州府에서 민간 사정을 조사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日本人들이 採漁權을 독점함으로써 도민들을 실업 상태에 빠지게 하여 衣食조차 곤란하게 되고 定稅도 물음이 없어, 이에 반감을 가졌던 어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교회로 많이 나오게 되었고, 한편 日本人과 결탁한 도민들은 天主教를 미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sup>22)</sup>

위에서 열거한 상반되는 두 가지 원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제주도에서 천주교가 유입되자마자 신자수가 갑자기 늘어갔고 교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세확장의 현상에 가만히 座視하고만 있을 수 없는 세력권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수년 전부터 음으로 양으로 제주도민을 괴롭히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入島와 그 선교에 대하여 강한 질시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던 日本人들의 濟州島 密漁業者들의 세력인 것이었다. 이러한 日

21) 제주도의 민란: 辛丑年 이전 五十年內에 일어난 濟州島의 민란의 종류

1. 壬戌年(1862)의 民擾~揚大稅를 濫徵하는 데 대하여 일어난 민란.
2. 庚寅年(1890)의 民擾~不均定한 稅率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란.
3. 丙申年(1896)의 甲午更張(1894)으로 말미암아 종래에 敎使·縣監을 대신하여 관찰사 경무청 등의 新制를 시행한 데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민요(이 민요의 결과로 舊制 복행)
4. 戊戌年(1898) 妖言者 房星七이 監稅의 폐를 구하겠다 하면서 수만 도민을 선동하여 관청을 습격한 민요.

22) 皇城新聞, 光武四年 12月 12日(陰10月 21日), <濟民誰頼>

「內部視察 丁裕燮氏가 濟州府에 到하여 民間情說을 周察하고 報告하되……(中略)一拜革罷하얏고 島民의 衣食이 在於魚採어날 現日人이 獨專其利하고 無有定稅하니 哀此島民이 斂手失業하얏고 該地方亂民之弊가 莫大於西學하니 勤人掘場하며 奪人財產으로 看作能事과 하얏더라.」

本 제국주의의 침투와 프랑스 선교사들의 宗教的인 선교사업이 제주도 도처에서 辛丑敎難을 발생하게 했던 것이며 국제적인 문제까지를 야기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열거한 원인 이외에도 갑자기 濟州島의 天主教 信者數가 늘어났던 원인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이곳은 본사 중앙정부에서 소외된 識者들이 유배살이하는 배소이며 政客들의 집합소로서 많은 人物들이 당시의 政府에 반감과 울분을 갖고 귀양와서 불우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사에 허무함과 인생관에 대한 사색에서 入敎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불수교이후(1866) 政府에서 西洋人 神父들을 특별히 보호하였으므로, 신부들의 세력에 의해 어떤 이익이나 용서를 받아볼까 하는 희망에서 귀양살이 罪人으로서 가장 먼저 入敎한 사람은 홍문관 교리를 지내던 李容鎬, 渭原郡守이던 李範疇와 崔亨淳, 감찰이던 張允善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天主教가 濟州島에 流入된 후 불과 몇 해 동안에 天主教의 전파가 급속화되었고 일반민중들이 天主教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天主教의 확장에 큰 경악을 품고 있었던 濟州島 土着人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저항하려는 地方勢力 圈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大靜郡守 채구석! 조직한 私設商務社이며 이 지방관은 濟州島 土着民들이 중심이 되어 外部勢力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써 노출된 것이었다. 즉, 결론하면 濟州島 辛丑年 敎難은 地方 土着勢力과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과의 절대로 타협이나 융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限界性 때문에 빚어진 충들의 양상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 Ⅲ. 辛丑年(1901) 敎難의 諸原因

#### 1. 日本 漁採人들의 通漁活動과 그 民弊

辛丑年 敎難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좀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 즉 지금까지는 이 敎難의 원인을 단순히 濟州島民들의 무식이나 혹은 선교사들과 그 敎人들의 作弊나 또는 樺稅官들의 수취행위 등 매우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측면만 규정함으로써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들을 덮어두게 되었던 문제점들이 있다. 여기서 지금까지도

濟州島民들과 일반적 認識에 있어서 이 敎難의 원인에 대한 오류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들의 사건 그 자체를 관망하는 안목이 좁은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자료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國內 문제나 더우기 島內의 문제만으로 한계지우려는 작업만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敎難의 원인을 보다 정확한 史料를 통하여 좀더 깊이 살펴보기로 한다면 결국 이 敎難의 가장 큰 원인이란 것이 일본 漁採人들이 대거 진출하여 와서 通漁活動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일본인들의 개입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는 史料들이 많이 노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辛丑年 敎難 때 濟州島 良民들의 대량 학살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거론되지도 않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원인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의 큰 근거는 당시의 근본 史料인 金允植의 《檀陰晴吏》에서와 새로운 자료인 당시 제주도 선교사들의 보고서 및 서간 등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약간 생소한 감은 있지만 일본 漁業者들이 최초로 어떻게 제주도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대강 살펴보기로 하면서 이 어업자들과 제주도 辛丑年 敎難과의 관련을 보기로 하겠다. 1876년의 丙子 修好條約 이후부터 일본 어로자들의 한국 진출은 더욱 빈번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그들 漁採者들의 한국 출어 행위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日 通商章程 第41款에서 우리나라 南部 四道海域의 通漁權을 확정시켰으며 그 후 기회 있을 때마다 漁採區域을 확장시켜가는 외교정책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여건을 배경으로 하고 한편 潛水器 漁法이란 근대적 어로방법을 가지고 황금어장으로 이름 높은 제주해역에서의 採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이다.<sup>23)</sup>

通漁問題의 외교적인 약정이 끝나 條約化된 것으로서 通商章程 체결은 한국

23) 李元淳; “韓末 濟州島 通漁問題一攷”, 《歷使敎育》 第一集, p. 14.

과 일본 두 나라의 수차례 쟁론을 걸쳐 7년만인 1886년 1월의 일이었다.<sup>24)</sup> 通商章程으로 韓海通漁가 約定됨에 따라 일본 어민들의 한국 근해 출입이 잦아졌고 더욱 한국보다 발달된 漁具로 인하여 그 수획고가 韓國 어부들보다 훨씬 올랐던 것이다.<sup>25)</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어업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제주도 해역에 들어와서 약탈적인 어업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더우거나 그 당시 일본 漁業者들의 잠수기 사용은 제주도 원주민들의 빈약한 漁船·漁具들에 비하면 그 능률이 10배나 더 커서 日本 어업자들의 잠수기 사용의 어업 행위는 제주도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벌써 1870년대부터 日本人 잠수기 어업자들은 우리나라 삼남지방의 남해안에서 활약하였고 특히 잠수기 어업에 적지인 제주도 근해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日本人의 잠수기 어업자가 제주도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79년경 吉村與三郎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 1대의 잠수기로 거제도의 부근에서 시업하다가 후에 제주도 북동 비양도로 장소를 옮기고 도민의 완강한 상륙 거부로 근거지를 대마도에 두고 通漁하였다 한다. 그 다음 2, 3년후(1882년)에는 모슬포 앞 바다의 무인도에 근거를 설치하였다가 加坡島로 옮겨갔으며 1887년경에는 7대의 잠수기로 종사하였다 한다. 吉村의 잠수기 어업이 점차 靑島에 들어서자 이를 추종하는 업자들이 제주도민들 중에 나타났으며 加坡島 등 제주 근해 및 섬 소안도·추자도 등이 그 근거지가 되었다 한다.<sup>26)</sup> 이러한 상황에서 유추해 보면 1901년 신축년 교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뿌리가 깊은 것으로 여기까지 소급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日本 어업자들은 제주도민들 중에서 그들의 추종자를 포섭하는 데 만전을 기울였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생긴 제주도민의 분노를 도리어 그 당시 이곳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했던 다른 外國人 佛國 神父에게 전파시켜 터뜨리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민의 생업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잠수기를 앞세운 일본 어업자들의 제주해역 침투는 제주도민 생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도민들의 반발을 자아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제주도민의 일본 어업자들

24) 高宗實錄, 高宗 26年(乙丑) 10月 20日條.

25) 朴九乘; 《韓國 水産業史》 pp. 243~244.

26) 李元淳; 上揭論文, p. 146.

에 대한 반발의 원인은 생업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다. 또 한편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日本 밀어업자들은 야만스런 나체 행위와 총검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배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어업 행위와 더불어 일본인 어업자들에 대한 반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주도민의 일본 밀어업자에 대한 반대와 당시 牧使와 지방관리들의 계속된 상소에 따라, 마침내 한국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通商章程에 約定된 日本人 通漁區域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對日 교섭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1884년 6월에는 金炳始(督辦交涉通監事務)의 이름으로 동년 8월 5일에는 金宏集(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의 이름으로 두 번이나 제주도와 울릉도 등의 採漁區域에서 삭제해 줄 것을 일본에 요청하였다.<sup>27)</sup> 즉 그 이유는 日案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수호 통상을 맺은 이유가 원래 양국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한 지방의 生靈에도 해가 있다면 이것은 보호하는 도리가 아니다 하므로 通商章程 제20관을 재조사하여 章程內에 만일 이러한 조약이 있다면 다시 고치기를 요구하면 응하여 주기 바란다. 피차에 평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정당한 조약 정신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6월 17일 外務協辦 金玉均이 日公使 島村를 방문하여 제주도를 納款之外하게 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제주도민의 生死에 유관한다는 간절한 호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매우 냉담하였다.

9월 19일 日本 嶋村久公使가 직접 金督辦을 면접하고 우리측의 요청을 거절하였다<sup>28)</sup>고 한다.

이리하여 양국간의 타협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는 이후 오랜 시일을 끄는 외교적 문제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884년경에는 일본측도 일부 양보하여 제주도 채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통고해 왔으나, 通漁權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利權을 얻기 위한 방편에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측의 濟州島 출어를 잠시 정지하게 된 것은 제주 목사 沈賢澤이 제주어민의 고충을 거듭 상소하여 적극적 대책을 요청한 결과와 활동의 결실이였다.<sup>29)</sup>

27) 日案：《舊韓國外交文書》，日案 I，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p.141. 第281條.

28) 日案：卷16. 濟州島 採漁展期 始末條.

29) 備邊司廳錄，265冊，高宗21年，甲申 7月 18日.

이후 1년 유여에 걸쳐 日人들의 제주 출어는 어느 정도 잠잠하여진 듯했으나 역시 일본인은 제주도에 관한 관심이 여전하였던 것으로 1886년에는 제주도 어장 조사차 선박을 출동시켰다가 제주도민의 완강한 방해로 무위한 채로 귀국하였던 것이다.

다시 일본은 1886년 9월에 通商章程 第41款의 約定에 의거하여 通漁關係 여러 사항의 세칙적 조약을 서둘러 제주도 採漁件을 해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때를 기하여 日本 어민 古屋利涉이 '2년간 제주 漁採'를 요구해 왔었다. 그 결과 1886년 12월 8일 우리 정부와 古屋 사이에 배상금 및 漁業等事가 약정되었다.

결국 1887년 3월부터 6개월간 古屋利涉의 14척의 漁船에 그 동안 반대하여 오던 제주도 通漁를 공인해 주게 되었다. 通漁章程 成立後 5년간 면세 조치마저 약속하였다 한다. 李元淳教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처사는 도시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 정부의 처사이다. 1개 私設會社와의 문제로 그들의 불법적 요구에 속절없이 말려든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古屋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제주 해역의 通漁를 노리던 다른 일본 업자들을 자극하는 바가 큰 데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예를 보면 일본은 이제는 공적인 투입보다 사적인 私設會社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주도 採漁權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 주게 된 것이다.<sup>30)</sup>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제주 도민들이 반발하자 도리어 우리 정부는 제주도민의 협조를 지시하였다. 심지어는 선처를 호소하는 도민들에게 강경한 태도로 임하였으나 제주도민의 반발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古屋利涉은 그 부하를 거느리고 제주 해역에 나가 採漁를 자행하였고 제주도민들의 漁具에 손상을 주는 등 행패를 마구하였다. 비단 採漁活動만해서 漁種을 남김 없이 없앨 뿐 아니라 加坡島에서 採鱈하던 日本 어선이 모슬포에 마음대로 올라와서 촌가에 침입해서 닭이나 돼지 등을 마구 잡아가는 민폐가 있었고, 이 때 이를 말리는 家主 李晩松을 살해하고 모슬포 사람 金成萬·鄭宗武·李光福 등에 폭행하고 譏察將 文才旭마저 위협한 후 불법 폭력을 마구 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李晩松 사건으로 양국 간에

30) 李元淳: 上揭論文, p. 150.

손해배상을 위한 교섭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며,<sup>31)</sup> 사실 이러한 사태는 오래 전부터 빈번히 야기되었던 예종의 하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1886년 5월에 제주도 停漁를 해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제주도를 둘러싸고 韓·日 양 어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자 현지에서 通漁章程約定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 외교관들은 제주 通漁를 고집함으로써 야기될 분쟁을 염려한 나머지 通漁章程이 성립되면 제주 通漁는 자연적으로 해금되는 것이니 조선 정부의 사정을 보아 3년 정도 여유를 주고 해금하게 함이 좋겠다 하였다.

즉시 해금을 강요한다면 혹시 通漁規則 협상이 늦어질 우려가 있을 것을 염려함에서였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 井上外相은 우리 정부에 通漁規則 約定의 날로부터 1년간만 해금을 연기시키겠으나 그 후 반드시 꼭 해금을 실행하도록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즉 1889년 11월 12일 韓日通漁章程 조인의 내용은 양국 議定에서 지방 해안 3리 이내에서 採漁가 약정되었으나 제주도 採漁만은 1년을 연기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인 것이었다.

조약 체결 후 1889년 말에 한국측에서는 通漁章程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 어업자들은 위에서 말한 約定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출어를 감행하였으며 폭력까지 수반하여 보다 惡性化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 密漁夫들의 행패는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으로서 1890년 양력 5월 제주목사 馳啓를 보면 당시에 日漁夫들의 作弊은 매우 심했던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일본 선박이 갑자기 육지에 상륙해서 동네에 밀어닥쳐 환도를 뽑아 梁宗信이라는 사람을 묶어 놓고 베어 죽이고 도망쳤으며 도민들은 실업상태에 빠졌으며, 또한 촌락에 마구 들어와서는 닭과 돼지를 빼앗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칼을 뽑아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하기 때문에 인명이 많이 죽었고, 그 참혹함이 극도에 달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다」<sup>32)</sup>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作弊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당시 治外法權을 누리고 있었던

31) 《日省錄》，李太王 34年(丁亥) 8月 17日，辛丑條。

32) 《備邊司臚錄》 271冊 高宗 27年 庚寅 6月 20日條。

「啓則日本舶至舍里，突然下陸 擱入閭巷 竊覘作奸 里民倉黃禁戢之際 日人怒拔環刀刺殺，該浦有司梁宗信 因即逃去……而至於臺地下陸 突入村閭 攘奪鷄豚 混雜男女 則居氓之當擄禁止 基勢固然 乃反拔刀亂刺 人命即死 慘毒之極 有不忍言」

일본인들은 유아무야하게 처리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通漁章程의 성립으로 제주도 採漁만은 1년간 연기하기로 합의를 보았지만 日本 어업자들의 제주 해역 침입은 더욱 악화되었고 민간에 대한 작폐가 빈번히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通漁禁止를 연기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永罷시키려고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리고 1890년 3월 15일부로 濟州島 通漁 暫通禁을 해제시킨다고 통고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시금 1년을 더 연기시키기를 일본측에 요청하였는데, 1년간 지연은 거부되고 6개월 연기에 동의하여 즉 1891년 5월 31일(음력 4월 24일)까지 그 기한으로 삼았다.<sup>33)</sup> 황금 어장 제주도에서 採漁가 다시 막히게 되자, 일본 密漁業者들은 해적과 다를 바 없는 만행으로 살육·접탈 등을 불사하며 제주 해역에서 날뛰게 되었다. 이 時期에 일어난 수다한 피살 사건에 대한 抗議文<sup>34)</sup>을 보면 日人들의 행패는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서 「行悖無所不至 全島勢將沒散」한 바와 같이 全島의 세력을 장차 바꿀 만하게 퍼져 있었다<sup>35)</sup>는 것이다. 당시에 나타난 수다한 기록들을 보면 日人들의 불법 침입과 그 민폐가 얼마나 극심하고 야만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현지 상황을 공동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측과 우리측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 濟州島 도민들의 정상과 通漁 반대운동은 우리 정부가 내다본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어서 결국 이때부터 제주도 通漁의 永罷 교섭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濟州島 通漁 永罷 운동은 1891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그 배경의 몇 가지 요인을 보면, 첫째는, 제주도민의 완강한 반대 운동이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생업을 수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자원을 이국인들에게 약탈당할 수는 없었다. 둘째는, 日人들의 行悖와 만행이었다. 그들은 通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집단적인 密漁活動을 제주도 근해에서 감행했을 뿐 아니라 마을까지 들어와서 약탈·살인·강간을 마구 행했으므로 제주도민들의 반감이 극도에 이르렀고, 韓·日 양국 간의 외교적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33) 李元淳: 上揭論文 참조.

34) ① 5월 15일 建入浦에 不法上陸하여 16인을 상해하고 任順白을 殺害하였다.

② 6월 30일 朝天里에 不法上陸婦女劫竊하고 糧米를 약탈하였다.

③ 6월 13일 金纓里에 不法上陸하고 李達兼을 살해하였다.

35) 《備邊司臚錄》272册 高宗 28年 辛卯 8月 22日條.

물론 이런 와중에서도 제주 도민 중에는 日本人과 내통하여 日人과 함께 행동하면서 민폐를 저질렀던 제주 도민 자신들도 수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제주 시찰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현황이 도저히 通漁를 승락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제주 도민을 설득함은 불가능하다는 보고로써 우리 정부측의 단안을 촉구하게 되었다. 넷째는, 법률사무소의 전무가인 美國人 內務協辦 具禮(Greatious C. R)의 건의로서, 제주도는 通商章程 第41款에 約定된 通漁區域에 해당되지 않으며 5년 기한으로써 끝나는 것이니 새로운 章程을 위해 체결된 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具禮의 제창은, 한때 장벽에 봉착한 듯한 제주 通漁 문제의 타개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이러한 상황과는 상관 없이 約定된 제주도 通漁 해금 기한인 1891년 10월말을 기하여 日本 外務大臣 이름으로 나가사끼현 知事 앞으로 제주도 通漁가 11월 1일부터 허가되었다고 통고하고 말았다. 이 통고는 사실상 協商妥訂中인 때 발동된 것으로 외교적인 협상에서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처사였다 한다. 한편, 이러한 통고를 받은 日本 어부들은 환회용약하면서 정부의 지원 아래 대대적으로 제주 해역으로 출어하였고, 그들의 採漁方法은 더욱 거칠고 야비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892년 이후 일본인 어부들의 폭행 사건은 제주 연안에서 급증해 갔던 것이다.<sup>36)</sup> 즉, 1892년 2월에 일본 대마도 어민 114名이 旌義縣 城山浦에 하륙하여 막사를 짓고 부녀를 劫姦하고 동민 吳東杓을 砲殺하였다. 이러한 旌義縣은 항상 日人 어부들의 근거지로서 9년 후 1901년 辛丑年 敎難 때까지 日本人들의 작폐가 이 旌義縣을 中心으로 끈질기게 작동하고 있으며, 辛丑年 敎難의 대학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1892년 4월에는 일본 어선이 禾北浦에 하륙하여 창고를 약탈하다가 도민들과 충돌하여 日本人들과 金斗九·高龍伊 등을 살해하였고 6월에는 명월진에 일본 어선이 돌연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高達煥·高永世 등을 살해하였던 것이다.<sup>37)</sup> 7월에는 서귀진에 일본 선박 43척이 상륙하여 폭행하였다 한다. 加坡島에도 5개의 막사를 짓고 採漁活動을 함부로 하였다. 이에 제주도민은 크게 반발하였고 日人들의 막사 건축과 採漁活動을 엄금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건의

36) 李元淳; 上揭論文 참조, pp.162~163.

37) 《朝鮮史》, 高宗 29年 6月 22日條, 再引用.

하였다. 정부는 일본 공사에게 불법적 結幕密漁活動의 금지와 일본 어부들의 密漁와 폭력행위의 단속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별반 효력도 없이 유아무야하게 되고 말았다. 결국 제주도는 日人通漁區域에서 제외할 것을 내포하는 새로운 通商章程이나 通漁章程의 체결같은 외교적인 법적 교섭은 일본측의 무성의, 외국 세력의 간섭 및 당시에 복잡한 국내의 정세로 말미암아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892년 말경에 한국 해역에서 활동한 일본 어업의 현황 보고서는 잠수기 120여대에서 採漁할 때 3~5년이면 漁種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잠수기 1대의 수익이 350圓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유리한 漁場에서 고도의 수익성을 가진 密漁活動에서 日人들은 법 질서는 무시할망정 제주 해역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永罷를 위한 章程改訂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후 日人 어업자들은 한국 국내 정세의 혼란의 틈을 타서 더욱 활발해졌고 1892년에는 三南 해상에 활동하는 日人 어선의 수가 2,000척 이상에 그 어부가 일만명 이상이었던 한다. 그리하여 1900년경에는 그들의 무질서한 採漁作業으로 제주도의 해산자원이 거의 고갈될 지경이었고 해녀에 의한 잠수어업에 의존했던 제주도민의 곤궁은 더욱 가중되었다.

위에서 논한 것은 日本 어업자들의 제주도 해역 침투와 그 작폐 및 생업을 위한 제주도 도민들의 항거 및 우리 정부의 외교적 교섭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요약함으로써 日本人들이 1901년까지 濟州島 해역에 끼친 영향을 좀 장황하게 살펴본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결론하면 1860여 년부터 우리나라 해역에서 활동했던 日本 密漁業者들이 1901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辛丑年 대학살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폭도들을 조종하였기 때문에, 이 난에 양민 희생자가 가중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日本 密漁業者들이 어떠한 전철을 밟아 이 제주도 해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어떠한 양상으로 그들이 제주도 島民들과 접촉하였는가는 이미 전의 拙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다.

## 2. 濫稅의 弊 및 敎弊

濟州島는 본래 규칙적인 세금을 중앙 정부에 내지 않았다. 지방 도지사나 지

방지사들은 도민들에게 매우 무겁고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고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서울에 보내지 않았다. 2년전부터 捧稅官들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보내졌다. 그래서 지방 토착관리들은 그들 捧稅官이 이 섬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크게 무서워했다. 그들은 捧稅官이 실패하도록 하는 한편 稅金의 종류가 참으로 지나친 것이라는 구실 아래 그들을 소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으키지 않는 중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세리들을 부추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도민들을 충동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징수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세금은 사실 엄청난 부담을 지게 했다.<sup>38)</sup>

앞에 본 바와 같은 Mutel主敎의 보고서를 간추려 보면 黃耆淵의 보고서와 좀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즉 봉세관이 이곳에 온 것은 收稅에도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곳의 地方官吏나 土豪들의 행패가 중앙에 알려져 그들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왔다는 봉세관에 대한 적개심이다. 여기서 地方土豪들은 捧稅官이 來島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서 꾸미지 않는 중상이나 이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편 地方土豪들이 “捧稅官들을 부추기 위해서” 즉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도 도민들을 충동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구실로 稅金을 징수했기 때문에 어떤 세금은 실로 엄청났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捧稅官과 地方官吏나 土豪들 사이에 생긴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收稅의 수다한 종류나 봉세관들에 대한 기록이나 史料에 나타난 作弊라는 것이 土着人이나 土豪 및 地方官吏들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자신들이 꾸민 사건이며 收稅行爲였음을 분석해 본 것이다. 즉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 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인물을 추려 본다면 결국 그 당시 제주도의 토착 세력을 규합 형성하고 있었던 大靜郡守 채구석과 외래 세력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게 하는 경제적인 수취인이었던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평안북도인으로 서울에서 파견된 봉세관 姜鳳憲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관계 史料에서 이 두 사람의 분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아 봉세관 姜鳳憲과의 충돌이 이 신축년 교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귀추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들 두 사람의 세력 사이의 충돌이란 것은 결국 토착세

38) <Mgr. Mutel 보고서>, <Compte-Rendu des Travaux de la société des M.E.P.>.

력과 외부세력과의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분쟁과 충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나 봉세관 姜鳳憲이, 경제적인 수취인으로 지방 세력권을 쥐고 있는 채구석이 수탈해야 되는 세금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졌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충돌인 것이었다. 金允植도 앞서 말한 Mutel主敎의 보고서와 동등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此島는 開闢 以來로 王稅(중앙에 바치는 세)가 없고 瘠土를 勤耕하여 겨우 自給할 수 있었다. 無稅인 까닭으로 生殖이 頗繁하고 民이 모두 삶을 즐겁게 하였다. 이제 이르러서는 時勢가 이전과 달라 土地正稅를 헌납하지 않을 수 없고, 백성들은 이를 알고도 다른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봉세관 姜鳳憲이 內藏卿 李容翊의 뜻을 이어받아 專心虐斂을 일로 삼고, 公土라 칭함으로써 民田을 勒奪하고, 또 人家間數를 摘如하여 園廁에 이르기까지 執稅하고, 村·理 및 山上樹木이 모두 定稅되어 大木은 數十兩, 小木은 五, 六兩을 不下하고 蘆葦雜草도 모두 稅를 면치 못하며, 漁網稅는 한 곳에 8백냥에 이르렀다. 또 姜鳳憲은 교인들과 상통하여 公土舍音 및 漁船·漁網 收稅에 모두 교인들을 붙여서 받아내게 했다. 十餘頭魚를 잡아서 얻은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그 반을 빼앗아 上納한다고 소문이 났다. 계란 수십 개를 모은 사람이 있으면 곧 그 반을 빼앗아서 鷄卵稅라 하였다 한다. 牛馬鷄犬이 모두 稅를 면치 못하였다. 이곳 사람이 말하기를 산천초목 금수어벌이 모두 난잡을 만나고 三邑錢이 말라서 牛馬, 田土價가 이를 위하여 減하니, 如此한 騷擾가 어찌 閭을 不起함을 얻으랴 하라!」<sup>39)</sup>

고 金允植이 《續陰晴史》의 기록을 통하여 제주도의 남세의 폐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좀 장황한 인용으로 그 당시 稅弊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제주도 도민들의 정상과 경제 상태의 궁핍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나 이곳은 無稅地域으로서 이때 와서 새로이 잡종 稅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이곳 島民들은 심리적으로 더욱더 큰 부담감을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봉세관에 대한 얼마나 큰 반감을 도민들이 갖게 되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시의 稅弊란 舊韓末 국가전체의 문제로서 甲午更張(1894) 이후 元宗·結戶 兩稅外에 戶主稅·文檢稅·官繩索錢·漁場稅·

39) 《續陰晴史》, 光武 五年(辛丑) 二月 九日.

市場稅 등 각종의 세목이 갑자기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重稅와 겹친 흉년에 못 이기어 곳곳에서 민란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때 지방관리들의 잡세는 더욱 민중들의 짐을 무겁게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無名 잡세를 징수하는 폐단은 京來 捧稅官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도시 또는 항구에 개설된 官營 商務社 혹은 私設 商務社의 行恃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이 많이 들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한 예가 濟州牧 大靜郡의 私設 商務社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정군수 채구석이 私設 商務社를 설립한 것은 천주교를 타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내세웠으나 실은 그 본래의 의도란 것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本員(捧稅官) 姜鳳憲의 收稅行爲를 봉쇄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닌가 한다. 제주도 내의 모든 세를 채구석 자신이 세운 商務社의 各種 無名雜稅에 충당,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저의가 그 목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설립된 대부분의 상무사란 것이 官設이라든지 혹은 官權을 배경으로 하는 사설이든 간에 설치된 사설상무사 내지 몇몇의 회사들이 收稅의 책임량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0)</sup> 상무사에 부속시킨 의무로서 收稅 등을 함께 경영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시의 收稅의 양상을 보면 상무사는 상무사대로 元定稅 이외에 각종 勢名雜稅를 받아 적당히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고,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봉세관은 봉세관대로 각종 행패를 자행했던 것이 당시 국내의 정세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정군수 채구석도 이러한 私設 商務社를 설립하여 음 3월 18일에 郡民 姜伯伊, 姜希奉, 馬贊三, 鄉長 吳乙吉 등 수십 명이 모여 모의하고 천주교인 10여 명을 난타하고 도민들을 선동하여 난을 도모하였으며 봉세관 강봉헌의 모든 사무를 일체 방해하고 韋放하였던 것이다. 한편 大靜郡 채구석은 매사에 먼저 민중을 음으로 선동함으로써 이 세력에 의지하여 모든 도민들이 호응하였고 한편 이러한 토착 세력이 대단히 크게 되어 아무도 대응할 수 없는 거의 절대 세력권을 형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41)</sup>

위와 같은 내용은 《Mutel주교의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40) 皇城新聞, 光武 五年 五月 二十日.

41) 皇城新聞, 光武 五年 五月 二十日. 〈濟州民擾〉

「근년까지 제주도는 중앙정부에 정규적 세금을 공급하지 않았다. 군수와 부군수들이 멋대로 훔치는 아주 무거운 수확과 액수를 징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속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썼고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 뇌물 금액밖에는 중앙에 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관원들의 不法徵稅行爲에 대한 당시 목격자인 具마실神父의 서간을 간추려 보면 이 사건의 경위의 실제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具신부 서간 <No. 25>에서는 舊牧 李庠珪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요즘 심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토요일 밤에서 主日날 아침에 新任 牧使가 제주읍 성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새 牧使가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舊牧使 李庠珪는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의 옛 하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고통스럽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도민들은 牧使가 착취한 비합법적인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관리의 집에 진을 쳤습니다. 그의 가방을 열기 위하여 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거의 40,000냥(Ligatures)이 됩니다. 그 전액의 대부분은 나의 본당 구역의 信者들에게 도둑질한 것이고 그들의 개종전에 벌써 20,000냥이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퇴직된 이후부터 쉬지 않고 일어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그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반대하여 소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려고 애썼습니다……」<sup>42)</sup>

고 기록하고 있다. 舊牧使인 李庠珪가 어떠한 양상으로 착취하다가 과직되었나를 잘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 李庠珪事件은 교난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발단으로 야기되어졌다. 또한 위 서간의 내용에서 보면 다른 도민들의 것보다 敎人들의 돈을 더 많이 갈취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온갖 자신들의 잘못을 교인들에게 돌리고 교인들을 이용하려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舊牧 李庠珪事件은 좀더 크게 확대되었던 것으로 李庠珪가 山底浦 옆에 있던 敎練廳으로 나아가 떠나갈 배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위에 具神父 서간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빼앗긴 후 敎會에 나오던 島民들이 그를 찾아

42) 具마실(P. Marcel Lacroust) 神父의 書簡 <No. 25>, 1901. 3. 5.  
 <李庠珪의 勒奪 敎民 等 錢知數記 참조> Mutel 文書: 濟州-156.

가 돈을 돌려 달라고 소동을 벌이게 되었고, 翌日에도 旌義敎堂의 朴會長이 십여 명의 信者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배를 타려던 牧使에게 옥을 보이려 하였으나, 이때 具마실神父는 朴會長들의 하는 일을 말리고 服事 崔亨淳을 시켜 牧使를 무사히 떠나가게 하였다<sup>43)</sup>고 기술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예의 사건들은 地方官吏나 중앙에서 파견된 視察官들이 법의 힘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여건을 기회로 하여 제주도 양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가렴주구했는가를 그 당시 현장의 목격자인 宣敎師의 서간들을 통하여 보았고, 또한 이 서간들을 통하여 나타난 사실들을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 보도되고 알려진 당시 제주도 사건에 있어서 관리들이 지적하였던 교폐의 내용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선동된 토착인들의 말을 듣고 소문에 의하여 기록된 많은 誤報된 기사들이 수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도 제주도 도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제주도에 관련된 당시 기사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당시의 平敎徒였던 崔翬文(요한)의 《濟州民亂에 대한 敎民緊急報告書》의 내용을 보면 더욱 이러한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즉 그는,

「濟州牧管下 大靜郡守 蔡龜錫의 私立商務社 一款은 原來 牧使郡守가 恃以絶遠 朝廷하고, 不圖保護生民而 勒奪民財 以充已慾이나가 一自聖敎師化人과 捧稅官行公後로 民心歸順하야 概知國有法, 家有道而 庶幾開荒하야 不服其不忍之政이온바 所以로 官員의 已慾을 難售에 私囊을 未繕故內多狹憾하야……」<sup>44)</sup>

라고 한 바와 같이 絶遠朝廷을 빙자해서 이곳 地方官吏들이 生民의 保護는 도모하지 않고 백성의 財産이나 탈취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던 중에 마침 聖敎(天主教)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이다. 한편 때마침 京來 捧稅官들이 들어와 국가에 행할 백성의 할 의무를 알림으로써 나라에는 법이 있고, 가정에는 도가 있음을 알리고 각종 잡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민심이 탐관오리의 官吏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天主教로 귀순하

43) 《續陰晴史》, 光武 五年(辛丑) 三月 四日.

44) 崔翬文(요한); 《濟州民亂에 대한 敎民緊急報告書》, 1901. 5. 14; Mutel文書 濟州-27.

는 사람이 많아지자, 官吏들이 참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품는 데 곤란했기 때문에 도민들로 하여금 教徒들을 무함하도록 선동했다는 내용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마침내 1901년 이 濟州島에는 천주교인을 겨냥한 전대미문의 大迫害와 학살사건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 IV. 亂後 教民에 대한 迫害現況과 教會發展

1886年 韓佛條約을 계기로 100여 년간에 걸친 天主教 迫害政策은 끝이 났다. 그러나 유학적인 전통이나 인습에 젖어 있었던 당시의 일반관습은 이러한 오랜 박해의 전통이 국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一朝一夕에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이와 같은 박해 사건들은 地方官吏들이나 地方儒林들에 의하여 소규모의 사건에서 점차로 대규모의 사건으로 변하여 각처에서 대박해와 유사한 양상으로 탄압이 빈발하였던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당시의 지방적인 자치 단체 및 지방관리들과 敎人들 사이의 분쟁에서 혹은 敎人들과 民間人들의 충돌에 의한 民擾事件들이 대단히 자주 일어났던 것을 法案에 나타난 史料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예가 舊韓末 外交文書 중에 빈번히 기재된 ‘忠淸道の 牙山事件,’ ‘全羅道の 智島,’ ‘黃海島의 長湫,’ ‘江原道の 伊川’ 등지의 계속적인 敎案事件으로 부패한 官吏와 완고한 儒生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天主教人들과의 충돌 사건이 일어났고, 결말에서는 敎人에 대한 박해와 탄압으로 양상이 바뀌어져서 곳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민란 사건까지 동반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즉 이러한 民擾들 중에서 근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時日을 끌면서 수습하기 대단히 복잡한 외교관계의 문제까지 야기시켰던 사건이 바로 辛丑年(1901) ‘濟州島 敎亂事件’인 것이다.

이 제주도의 敎難事件은 民亂의 범위까지 확대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 土着人들과, 그 土着人 官吏들, 京來捧稅官 및 流配罪人들과 한편으로는 日人密漁業者들, 또한 결국에 가서는 그 곳에 宣敎를 위해 來島했던 프랑스 宣敎師와 그 信徒들과의 사이에서 발생되었던 사건이었고, 또한 경제적이며 社會的인 대단히 복잡한 상황과 원인으로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民亂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로 이 民亂이 일어난 원인은 大靜郡守 채구석이 제주도 土着人 세력들을 규합하여 만든 私設商務社員과 敎人들과의 소규

모의 감정적 대립이 확대되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濟州邑城을 포위 공격하는 일대 공방전으로 번지게 되었고 마침내 中國에 정박해 있던 두 척의 불란서 함대까지 파견하게 되었으며 한편 제주민간인들로 구성된 反亂軍은 濟州城의 함락과 아울러 700여명의 敎人 및 良民들의 피살자를 내게 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대학살 사건은 단순한 敎人이나 民間人들과의 충돌 사건이라기보다 濟州島民들에게 오랫동안 잠재되었던 外部勢力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한편 土着勢力들이나 地方官吏들은 도민으로부터 경제적인 수취를 독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京來擗稅官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감과 반감을 노출하게 되었던 데서 근본 원인이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전통적인 民俗信仰을 고집하는 島民들의 반감 등이 새로 來島하여 宣敎를 시작하게 된 天主教에 대한 증오가 노출되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민간 도민들의 반감을 이용하여 地方土着官吏들이 외부세력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했던 民擾의 성격을 지닌 사건인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 당시 濟州島 근해의 漁庫에서 密漁業을 행하던 日本漁採人들이었다. 이 辛丑年 敎難 경과에 나타난 史料를 보면 日本 밀어업자들은 濟州島의 地方土着官吏를 뒤에서 조종하였고 원조하였으며 무기를 공급하는 등 갖은 수작을 다 한 사실이 들어남으로써 매우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건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이 事件研究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이 敎難의 원인에 대하여 특별히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 사건의 숨겨진 원인은 결국 일본식민주의의 한국 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좀더 명확하게 이 사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韓·日, 韓·佛의 국제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누적되어온 사적 오인들에서 좀 더 당시 진실된 사실과의 거리를 갖지 않게 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辛丑年 敎難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양민 학살이 단시일 내에 한 곳에서 감행하게 되었다는 점과 최대의 敎案(法案)件이 형성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韓·佛의 국제적인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民擾 主謀者들의 재판과 피해 賠償金 문제, 학살된 양민들의 營葬地 문제 등, 사후 처리에 있어서 그 복잡성이 근대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즉 그 당시 信敎自由가 보장된 상황하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대규모의 敎人 및 양민학살 사건과 폭도들의 무력 행사 및 濟州城의 포위 공방전이라는 열전이

벌어졌고 불란서 함대의 濟州島 入港 등이 이 사건의 실제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여 한 국내의 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야기되면서 한국정부는 사건 처리의 복잡한 측면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제적인 체면과 韓·佛 관계가 다시 종교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많은 부수적인 외교적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史料에 입각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상술하면서 이 사건의 실제적인 原因이 무엇이었는가를 대충 살펴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濟州島의 당시 외부세력으로서 순전히 傳敎의 목적으로 入島하게 된 佛蘭西 선교사들과 그들이 入敎시킨 天主教 信者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民亂에 휘말리게 되었고, 地方土着民들의 악화된 감정의 반발에로의 과녁과 분화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서 부각되었고, 佛國 함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서울 중앙정부를 통한 사건 처리에서 韓·佛關係의 묘한 외교적인 알력 관계를 빚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은 오랜 시일과 복잡한 국제외교적인 法案件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濟州島 사건으로 말미암아 民亂 진압 후에도 만 3개년을 끈질기게 韓國政府와 불란서 공사 사이에 韓·佛間의 照會件이 생기면서 그 외교관계가 쉽게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측에서는 배상금 문제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의 아직 외교적 사안의 처리에 세련되지 못했을 뿐더러 국내적 경제가 탐관오리의 횡행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案件에 대하여 유야무야하게 넘겨 버려서 시일의 지연만을 해결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佛公使측에서는 이러한 한국 정부 측의 형편과 여건을 알아차리고 배상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끈질긴 독촉을 하였다. 즉, 大韓政府가 불란서 公使가 앞서 조회한 배상금 청산에 관한 안전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과 회답이 없자 佛公使측에서는 철저한 자료 제시와 함께 20여 차례의 조회로써 쉴 새 없이 독촉하게 되는 외교적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佛公使의 사무적인 문제와는 달리 이 濟州敎難으로 인한 인명 피해라든지 濟州島內에서 난 후 처리나 생존해 남아 있었던 濟州島民 및 宣

敎師와 그 敎人들의 참상이란, 필설로 나타낼 수 없는 참상이었던 것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 난의 가장 큰 피해로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란서의 두 척의 함대가 제주 연안에 처음 도착하게 되었고 이 佛艦長 2인과 다수 불란서 水兵과 함께 朴道行(Pr. Poisonel) 神父가 상륙하여 제주성내를 살펴 본 때가 1901년 5월 28일이었다. 이때 이 水兵들은 그 당시의 관덕정 앞에 즐비해 있었던 敎人들의 학살된 광경과 시체들을 촬영하였고 그 당시 프랑스인들의 본국 잡지들에 공개하였던 것이다. 이들 사진과 기사 중에서 당시 敎人들의 참상을 간추려 보면

「5월 28일과 29일의 학살은 대단히 무서운 광경이었다. 늙은이들, 부인들, 어린이들 아무도 제외됨이 없었다. 단지 이 날 제주성내에서만 150명의 희생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있었고 전체 제주도내의 것을 합해서 본다면 5,600명의 희생자를 헤아릴 수 있었다. 敎使官에서 宣敎師들은 실제로 그들의 복사소년이었던 17세의 소년이 폭도들에게 쫓겨서 그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 폭도들에게 끌려나와서 두 눈을 빼고 오랫동안의 고통과 고문을 준 뒤에 순교시켰던 것을 목격하였다. 새로 임명된 관리와 두 사람의 함장과 水兵 몇 사람이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성내 한가운데 아직도 학살될 때 사용되었던 막대기와 돌들 사이에서 즐비해 있는 시체 68구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었다.」<sup>45)</sup>

上記한 기사는 그 당시의 제주도의 비참한 모습을 역력히 보여 주는 현상이

45) MASSACRES EN CORÉ; Les Missions Catholique, X, Août, 1901, pp. 373-375.

「Le 28 et le 29 mai, le masasacre fut épouvantable, vieillards, femmes, enfants, rien ne fut épargné. Dans la seule ville, on comptait cent cinquante victimes et, dans toute l'île, de cinq à six cents ont été massacrés.

Dans le mandarinat même, les missionnaires étaient si peu en sûreté que leur domestique jeune homme de dix-sept ans, caché avec eux, fut livré aux rebelles qui lui crivèrent les yeux, et, après un long martyre, finirent par l'assommer.

Un nouveau gouverneur fut débarqué. Les commandants des canonniers descendirent aussi à terre avec une escorte. Au beau milieu de la ville, ils purent encore compter 68 cadavres gisant sur la place au milieu des pierres et des bâtons qui avaient servi à les assommer」

다. 또한 그 당시의 현지조사에서 보고된 살륙당한 사람의 명단과 파괴당한 家産·집물들의 조사록과 亂民과 폭도들로부터 作弊당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 45條文으로 된 《濟州牧大靜郡各里亂民作弊大概成冊》속에서 당시 제주도의 23개 里洞에서 전개된 亂民들의 敎人 학살을 명확히 볼 수 있다. 濟州全域에서 피살된 敎民의 수는 天主教會側의 기록에는 5,600명 내지 700명으로 明記되었고, 당시 궁정 고문관 미국인 M. William Sands의 보고서에서는 300여 명으로 되었으나, 제주목사의 보고와 金允植의 日記에는 제주읍 성 충돌사건 이후 매일 살상이 40~50명이요, 5월 28일에만도 250여 명을 살육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읍성을 포위한 날짜를 10여 일 내외로 보면 제주읍 이외의 각지에서만도 많은 敎人이 학살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교회측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며, 실제로 그 당시 불란서 함대 2척의 함대장들이 목격한 사실의 기록인 것이다. 한편, 李在守의 재판 기록에서는 李在守 두목 한 사람이 친히 죽인 숫자가 95名이라고 李在守 자신의 고백을 우리는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이 난의 참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폭도들이 敎人과 더불어 일반 良民들을 해한 방법이란 전편의 金允植의 日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포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한편 이웃끼리 작은 원한으로도 이러한 기회에 살해로써 그 원한을 노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제주도의 土着官吏들이 외래세력인 敎人이나 봉세관에 대한 미움으로 同族·同民·親族끼리 살육한, 人倫을 무시한 폭도들의 행위였음이 틀림없으며, 인간을 무시한 亂民의 폭행이었다. 이러한 인명피해는 이 敎難이 발생한 이래 1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폭도들의 폭행이 횡행했기 때문에 당시의 敎人들이나 일반 村民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의 敎人 학살행위는 제주읍 성안에서만 일주일이나 계속되었으며 제주도내에서 완전히 난이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려 50여 일을 두고 끊임 없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다시 당시의 기록인 《濟州民亂殺人者姓名居住列錄》중에서 열거된 명단을 보면, 濟州城 밖의 부락인 大靜·旌義·山底洞 등지에 거주했던 洞民들 중 50여 명이 죽인 敎人의 수가 200여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명단에 나오는 高永守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殺敎人百餘名이며, 鄭德元은 殺敎人三十餘名이며, 宋希守는 殺敎人數十名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명단을 제시하면서 아래에 첨부된 내용은 「이 變亂時 殺人者數

는 부지기수이나 여기에 기록된 것은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자만이 기록된 것이며, 나머지는 추후에 상세히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에서 조사된 명단은 敎會側의 조사 기록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조사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명단은 이 辛丑年 敎難의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서 사적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조사보고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記錄文書는 《濟州民亂時의 加害主動者列錄》<sup>46)</sup>이라고 명시된 당시의 조사서로서 여기서도 역시 교인측에서 조사한 濟州에서 敎人을 학살하는 데에 主動的 역할을 한 남녀인들의 명단과 행동 및 조사자의 處罪意見까지 기록된 일람표를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서기록에서는 주로 이 敎難의 경과 중에 폭도들과 그 首魁들이 상통하거나 혹은 府動合勢하여 난을 더욱 악화시켰거나 守城門의 비상시에 金南赫 같은 사람이 開門하기를 먼저 首倡하면서 亂民을 迎入시킴으로써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람이거나 부녀자들을 선동하여 성문을 열고 朴會長 같은 敎人들을 체포하게 한 인물들의 명단 및 處罪請意見錄이며 즉, 이 敎難의 성격과 그 진상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주로 유배죄인이거나 日人과 부동한 자이며 한편 妓女 및 巫女·妾女·閨女·退妓 등의 여인들이 가담하거나 혹은 선동한 기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前編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도덕적인 생활에 근본적으로 반대한 天主教 敎理라든지 새로운 생활에 대한 반감에서 생긴 저항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 巫女·妓女·退妓·閨女·妾女 등이 하필이면 朴會長(朴도마스: 선교사들이 뽑은 전교회장)을 체포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 있는 것으로, 朴會長의 傳敎會長으로서 가르친 교리 내용에 이들 여인들이 반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기록 중에서 「文平植: 居司馬齋 前倡率金井洞男女等訴于京兵將官力 請殺餘存敎人 以絕敎種」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난이 진압된 후에 京兵이 들어오고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다가 간후에도 나머지 잔존해 있었던 敎人들의 絶種을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남녀동민을 모아서 교인들을 절멸하려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선동하는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폭도 난민들의 만행을 표현하고 있는 史料인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난에 희생되어 살육되었던 인명도 그러하였지만 당

46) Mutel 文書; 濟州-146. 《濟州民亂時의 加害主動者列錄》

시에 잔명하여 생존했던 신자들이라도 매를 맞아서 병신 불구가 되어 죽는 것만 못하게 잔존해 있는 신자들이 당하는 敎難이 얼마나 격심했던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이 난의 체험자였던 宣敎師들의 手記에 수다하게 나타나 있는 사실들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史料들을 정리, 분석하면서 이 사건의 사적 진상을 대강 규명해 보았다. 즉 이 民亂과 敎難은 1901년 5월에 발생하여 사후 수습상의 처결이 지연됨으로써 1904년 6월 27일경에 비로소 그 해결을 보았던, 오랜 시일을 요하였던 사건이었다. 즉 이러한 사건은 韓國外交上에 한 췌점을 노출했던 民亂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이 敎難, 즉 民亂의 과정에서 폭도들이 자행했던 인명 학살 및 良民들의 家舍汁物의 파괴 및 燒燼 등의 폭행, 파괴는 결국 동민들끼리, 島民들끼리 싸우게 된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가 돌아가지 않았던, 즉 양편이 모두 다 피해나 손해만 입었던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싸움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묘한 외부세력의 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외세에 대하여 지금까지 폐쇄된 정치나 환경에서 살아왔던 민중들이 적응, 반응했던 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국 韓國近代史에서 그 동안 은폐된 지리적 조건 및 개방되지 못한 환경에 있었던 민중들이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왔던 외세에 대처하여 민중들끼리 서로 엇갈리고 상반된 적응의 한 형태로 노출된 비극이며, 비정상적인 추세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敎難의 결과라고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세 한국 역사상에 많은 교훈과 사적 비판을 자아낼 수 있는 問題點을 던져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엄청난 박해와 사건을 통하여 수용된 天主教는 처음으로 宣敎師들이 1899년 5월에 배(Peynet)神父와 金元永神父가 入島하여 天主教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메이네·배神父는 다음 해 전북 본당으로 전임되었고, 1900년에 具神父(P. M. Lacrouts)가 부임하게 되고, 1901년 5월에 文神父(G. Mousset : 후에 大邱敎區의 主敎가 됨)가 부임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濟州城內는 具神父가 司牧하는 담당지역이었고, 金神父와 文神父는 旌義郡의 西烘里와 한논(大畚)에 성당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辛丑年 敎難事件이 진압된 후 九死一生으로 살아 남았던 具·文 양 神父와 교우 40여 명이 프랑스 함대의 구조를 받아 목포에 있었던 성당에서 몇 개월

### 濟州島 天主教의 受容 展開過程

지내다가(具神父는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01년 10월말경에 제주도로 다시 돌아왔다. 1902년에 文神父는 경남 마산 본당으로 전임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Emsile J. Taquet(嚴)다께神父가 제주도에 발령되어 4월 23일에 한논 본당에 부임하고, 제주읍에는 다시 具神父가 말아오든 難後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지역의 宣敎에 진념하였던 것이다. 具神父는 宣敎와 함께 교육사업에 착안하여 이곳에 처음으로 신식학교인 晨星學園을 세워 島民敎育에 힘 썼으며 1910년경에 성바오로회의 修女들까지 초빙하여 敎育에 종사하게 하였던 것이다. Taquet(엄)神父는 후에 本堂을 서귀포 서흥리(현재 복자수도원)로 옮기고 13년간이나 宣敎에 종사하였으며, 그는 또한 본래 植物學者였던 관계로 濟州島山植物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벚나무의 原種을 발견한 장본인이며 밀감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제주도 산업에 많은 공헌을 남겼던 것이다.

그 후 具마실神父는 1916년에 비로소 타지방으로 전임(全州本堂)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으로 具神父는 16년간이나 이 濟州島에서 선교에 종사하였고, 그 辛丑年 敎難을 친히 겪으면서 난 후의 모든 복잡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오로지 이 濟州民들의 이익과 정신적인 교육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이다.

이상으로 대단히 복잡한 濟州島의 天主教 受容 과정을 살펴보았다. 異質的 宗教에 대한 島民들의 저항에서 생긴 敎難과 迫害·殉敎를 씨앗으로 하는 天主教의 뿌리내림은 이곳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많은 이곳 순교자들의 피는 분명히 이곳 濟州島의 福音의 씨앗이 될 것이며 敎會發展의 원동력과 島民들의 빛의 구실을 할 것이며 복된 구원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